기아차 임협 타결…유통업체 '700억 특수' 기대

광주 백화점 "침체된 소비시장의 단비"

온누리상품권 지급 전통시장들도 미소

기아자동차의 2013년 임금교섭이 추석 전인 지난 13일 타결·완료됨에 따라 시중에 약 700억원 가량의 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돼 지역 유통업체들이 오랜만에 미소를 짓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기본급 9만7000원 인상과 성과격려금 500%+870만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상의 타결로 직원 1인당 평균 1000만원 이상이 지급된 셈이며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800만원 이상의 돈이 직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기아차는 지난 13일 찬반투표가 가결로 확정됨에 따라 이번 자금을 16일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직원이 7500여명으로 총 600억원의 돈이 시중에 풀리며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700억원 이상의 소비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백화점 등 지역유통업체는 기아차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임금 협상이 추석 전 타결됨으로써 지갑을 닫았거나 소비를 미루려고 했던 임·직원과 가족들의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임금 협상이 추석 전에 타결되면서 소비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비를 진작,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4월 기존 현대백화점과의 임·직원 특약 할인 협약을 인수하는 등 기아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기대는 남다르다. 이번 협상 타결로 조금의 여유가 생긴 임·직원과 가족들이 협약사인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아 추석 선물 등 구매를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정확한 분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협약 이후 기아차 임·직원 고객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협상 타결로 많은 임금이 지급되면서 백화점을 찾아 소비하는 임·직원들이 많아 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역시 지리적 이점을 앞세워 내심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전통시장 또한 지역 소비를 이끄는 기아차 임금협상 타결 소식을 반기고 있다. 특히 이번 임금협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개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되었으니 어떤 식으로든 소비가 이루어질게 아니냐"며 "추석 앞두고 손님이 없어 울상이었는데 그나마 좋은 소식이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노조 투표 74% 찬성…기아차 임협 마무리

기아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노조가 가결하면서 올해 교섭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13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조는 12일 사측과 잠정합의한 임금협약안을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조합원 3만670명 가운데 94.6%(2만9014명)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중 2만1424명이 찬성, 73.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69.9%로 집계됐다.

주요 합의내용은 기본금 9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성과격려금 500%+870만원(온누리상품권 20만원 포함), 주간연속 2교대 여가선용 복지포인트 50만 포인트 지급, 주간연속 2교대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 등이다.

노사는 지난 7월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개월 동안 5차례 실무교섭과 12차례 본교섭 등 모두 17차례 교섭을 벌여왔으며 추석 연휴를 닷새 앞두고 교섭을 매듭지었다.

노사는 16일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이삼웅 사장과 배재정 노조위원장 등 양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개최한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은 13일 "노사가 상생의 발전적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노사문화를 보여줬다"며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세관학교 졸업했어요" 광주세관(세관장 조훈구)은 14일 초등학생 4~6학년 40여명을 대상으로 세관의 역할과 기능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체험학습프로그램 제3기 어린이세관학교를 운영했다. 〈광주세관 제공〉

금호터미널 임직원이, 추석을 앞두고 독거노인에게 전달할 송편을 빚고 있다. 〈금호터미널 제공〉

마음 따뜻한 한가위 보내세요

금호타이어·금호터미널, 복지관에 추석선물

금호타이어와 금호터미널이 추석을 앞두고 이웃사랑 캠페인을 펼쳤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3일 광주 광산구 운남동 '더불어 樂 광산구 노인복지관'과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김석호 금호타이어 생산본부장을 비롯 노동조합 간부와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270여명의 노인을 위해 급식 봉사활동 및 복지관 청소를 도왔다.

또 내복 200벌과 송편 등 선물도 전달했다.

금호터미널 임직원들도 같은 날 광주 서구 쌍촌사회복지관을 방문, 송편 등이 담긴 '추석 선물 꾸러미'를 독거노인에게 전달하고, 급식봉사를 진행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공공기관·기업 추석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11억원 어치 구매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이 11억여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 · 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의준)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한 달 동안 광주·전남지역 50여개 기관 및 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캠페인을 추진한 결과, 예년과 비슷한 11억원 가량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온누리상품권 우수 구매기관·기업은 광주시 4억2000만원(소속기관·출연기관 포함), 전남도(소속기관 포함) 2억8000만원, 전남지방우정청 1억7000만원, 광주은행 1억원, 한빛원자력본부 5700만원, 여수광양항만공사 3300만원, 삼호중공업 1500만원 등이다.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 등 지역 대기업 사업장의 구매액은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집계된다.

이의준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올해는 소비심리가 한층 위축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며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조선업 회복…올 수주 작년비 84% 증가

회복세 가속…수주액 전망치도 360억 달러로 늘어

최근 조선업의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올해 선박 수주량이 작년보다 84%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조선업종 시가총액도 급증세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15일 올해 국내 선박 수주량은 1400만 CGT(수정 환산톤수)에 달해 지난해 대비 84.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연구소가 지난 7월 말 발표했던 올해 수주량 전망치(1160만 CGT)보다 20.7% 상향 조정된 것이다. 연구소는 수주액 전망치도 당초 350억 달러에서 360억 달러로 2.9% 올려잡았다. 양종서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제품운반선 등 상반기와 비슷한 선종의 수주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상선을 중심으로 생각보다 호전 속도가 빨라 수주량 전망치를 높였다"고 밝혔다.

1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25.3% 하락해 부진했던 수출은 2011년 수주한 고부가선들의 인도물량이 하반기에 몰리면서 상반기 부진을 대부분 상쇄, 작년 대비 감소율은 1.9%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조선업황의 회복 기미는 최근 들어 뚜렷해지고 있다. 컨테이너선을 비롯한 상선 해상운임과 신조선가(새 배를 만드는데 필요한 평균 가격)가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개월 벌크선 운임지수(BDI)는 19.4% 상승한 1352로 작년 2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작년 8월 말(703)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향후 전망이 결코 장밋빛은 아니라는 게 연구소의 관측이다. 양 선임연구원은 "업황 회복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내년까지는 회복이 비교적 느리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납세자 불복 돌려준 국세

상반기 8121억으로 급증

국세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소송 등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국세를 감액하거나 환급한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국세의 과오납 환급금액은 총 1조8378억원이다. 이 가운데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환급액이 8121억원(44.1%)에 달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환급한 금액 2조8158억원 가운데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환급은 1조508억원이었다. 국세환급의 유형은 세법에 의한 환급(직권경정 및 경정청구),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등에 의한 환급, 불복에 따른 환급으로 구분한다.

올해 상반기 직권경정 환급은 555억원,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 8311억원, 착오 또는 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이 13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이 세법에 의한 오류 부분을 수정해 '알아서' 세금을 환급한 직권경정 환급은 2011년 2552억원에 이어 2012년 2036억원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555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국세환급액은 지난해 상반기(1조2876억원)보다 43% 가까이 증가했다. 직권경정에 의한 환급금은 지난해 상반기(730억원)보다 24%가량 줄어든 반면 불복에 의한 환급은 지난해 상반기(3604억원)보다 125% 급증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563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5	10	16	17	31	32	21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932,735,643	7
2	5개숫자+ 보너스 숫자일치	59,338,375	38
3	5개 숫자 일치	1,373,239	1,642
4	4개 숫자 일치	50,000	79,945
5	3개 숫자 일치	5,000	1,324,790